

뉴스홈 > 속보 > 전체기사

<프로농구> KTF, 디지털비디오 분석 효과 '톡톡'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4-25 07:52

(부산=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프로농구 부산 KTF가 디지털 비디오 분석시스템인 '스포츠코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스포츠코드는 영상화면을 편집해 경기 도중 상대 선수 움직임의 장단점과 전술을 파악하는 분석 프로그램.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일궈냈던 [거스 히딩크](#) 축구대표팀 감독도 [압신 고트비](#) 코치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KTF에서는 2박3일간 전문교육을 받은 홍창의 전력분석 담당자가 비디오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추일승 감독 등 코칭스태프는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술 프로그램을 짜고 분석회의를 수시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 덕에 KTF는 2시간 분량의 경기 전체를 비디오로 시청하지 않고도 상대 팀 득점과 실책, 속공, 수비장면 등 가장 중요한 화면을 골라 반복해 보면서 훈련 시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었다.

KTF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2006-2007 챔피언 결정전 울산 모비스와 3차전을 앞두고 스포츠코드를 통해 상대 팀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갔고 결국 효과를 봤다고 한다.

2004-2005 시즌부터 스포츠코드를 이용한 KTF는 이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 1,2차전에서 모비스 득점 루트와 선수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게 크게 도움이 됐다

는 것이다.

KTF 구단 관계자는 "모비스와 경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 팀의 주 득점이 양동근과 크리스 윌리엄스의 2대1 패스, [양동근](#)의 픽앤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모비스 간판 슈터인 김동우는 3점슛 라인 정면 45도 각도에서, 우지원은 코너에서 외곽 슛을 자주 터뜨리는 점도 파악했다.

물론 정규리그를 치르면서 모든 프로 팀들이 다른 상대 팀의 특징과 득점 방식에 대해 웬만큼 파악하고 있겠지만 [추일승](#) 감독은 1,2차전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했던 터라 3차전에 앞서 모비스를 깰 비책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추일승 감독은 고민 끝에 1,2차전에서 구사했던 지역방어를 포기하고 3차전에서는 대인방어를 주로 사용하는 등 수비 전략에 변화를 줬다.

아울러 협력수비를 통해 모비스 핵심인 양동근과 윌리엄스의 패스를 차단하려는 데 신경을 쓰면서 김동우, 우지원에게 외곽 슛을 어렵게 주기 위해 한발 더 뛰도록 출전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신인 조성민에게는 돌파력이 강점인 양동근을 밀착 수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과는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면서 KTF의 82-75 승리. 울산 원정경기에서 1,2차전을 모두 내줬던 KTF는 홈에서 1승2패를 만들며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를 잡았다.

[홍창의](#) KTF 전력분석 담당자는 "스포츠코드를 사용하는 프로농구 구단은 국내 우리 팀을 비롯해 모두 5개 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3차전 경기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 4차전을 대비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끝)